



- **119출동 거부...응급 여부 다툼** - 춘천MBC
 - 술을 마신 환자의 가족이 119에 병원이송을 요청 했지만 거절됐고 결국 숨져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
- **119신고전화 장애대비 훈련** - 이뉴스투데이,연합뉴스
 - 119긴급 구조 시스템 장애 대비 훈련을 실시
- **특수구조단 인력풀 항공구조훈련** - 포커스 뉴스
- **인권위 의무소방대원 가혹행위 점검해야** - 로이슈,내일신문
- **강원소방 119구급차 병원성 세균 검사결과 안전** - 포커스 뉴스

- 소방서 언론동향 -

- 춘천 석가탄신일 대비 문화재 보유 사찰 현장방문 - 소방방재신문
- 원주 투 . 개표소 소방특별조사 - 소방방재,국제뉴스,뉴스타운,엔사이드
- 강릉 평창올림픽 안전 우리가 책임진다 - 도민일보
- 동해 송정초교 6학년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 엔사이드,강원신문
- 태백 코레일 강원본부, 영동선 비상대응 종합훈련 - 참뉴스
- 속초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시연회 - 소방방재,엔사이드
- 삼척 노인 사회활동 참여자 대상 소방안전교육 - 소방방재신문
- 홍천 현장출동 적응훈련 - 소방방재신문
- 횡성 웰리힐리 자위소방대 참여 가상화재 훈련 - 소방방재,강원신문
- 영월 석정여고 교직원 소방안전교육 실시 - 국제뉴스
- 평창 봉평초등학교 합동소방훈련 - 강원신문,소방방재신문
- 정선 봄철 산악사고 예방캠페인 - 도민일보,강원신문
- 철원 소방서, 경찰서 산악사고 합동 구조훈련 실시 - 전국매일신문
- 인제 석가탄신일 태비 전통사찰 소방특별조사 - 소방방재신문
- 양양 설악산 등산목 지킴이 운영 - 포커스 뉴스
- 기타 소방서장 동경 - 강원일보



119출동 거부...응급 여부 다툼



술을 마신 환자의 가족이 119에 병원이송을 요청 했지만 거절됐고 결국 숨지는 사태로 이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행 구조구급법은 소방관서에 인력 낭비를 막기 위해 비응급환자의 이송을 거부할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유족들이 반발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2월20일 새벽 2시 강원도119종합상황실로 칠수노모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몇칠계속 술을 마신 40대 아들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말하자 소방대원이 상황을 파악하고 환자가 병원에 가려하는지 묻습니다 본인이 원치않으면 출동할수 없다고 안내하자 할머니는 상태가 너무중치 않라며 재차 병원이송을 요청합니다 결국 출동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몇시간뒤 아들은 숨진채 발견됐습니다
 유족들은 신고를 받고 제때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상황이 달라질수도 있다고 반발합니다

[유족인터뷰] 119요원 조차도 배가 많이 아프다는 것이죠. 음주하고 복통이 심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응급환자라고 취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본인 의식이 있고 병원이송을 거부하는 것이 확인되 어쩔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소방본부 관계자 인터뷰] 단순 주취자로 판단을 해서 차량을 안 내보낸 것은 아닙니다 의사 표시를 할수 있는 성인이 병원에 가지 않겠다.. 본인이 안 가겠다는 걸 저희가 출동해서 강제로 끌고 갈수는 없거든요
 현행 구조구급법은 환자의 병력이나 증상등을 따져 응급환자가 아닐 경우 출동요청을 거절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방인력 낭비를 막기 위해선되 단순 치통이나 감기 술을 마신경우등이 해당됩니다 실체는 전체 구급신고 가운데 현장에 출동한사례는 25%정도입니다
 유족측은 응급여부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법적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춘천 MBC 박은지 기자 4.25 20:25]

강원도소방본부, 119신고전화 장애 대비 훈련



강원도소방본부(본부장 이흥교)는 25일 종합상황실에서 119긴급 구조 시스템 장애 대비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장애 유형별로 119신고 회선, 교환기, 전화 분배 장치, 긴급신고 전화 통합 시스템으로 구분해 이들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복구대처할 수 있는 능력 강화 모의 훈련으로 진행됐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훈련으로 119상황요원의 장애 유형별 대처 능력을 향상시켜 24시간 상시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하고 상황업무 처리 운영 능력이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방헬기 이용 항공구조는 이렇게'



(양양=연합뉴스) 강원도소방본부가 25일 강원 양양군 일원에서 소방본부 특수구조단과 산악·항공·수난·탐색·화학 분야 자격 취득 및 경력자들이 인력풀 구조대원 50명을 대상으로 소방헬기를 이용한 항공구조 합동훈련을 하고 있다. 2017.4.25 [강원도소방본부 제공=연합뉴스]



강원도소방본부는 24~25일 양양군 일원에서 소방본부 특수구조단 및 인력풀 구조대원 50명을 대상으로 소방헬기 이용 항공구조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에 참가한 인력풀 대상은 산악, 항공, 수난, 탐색, 화학분야 자격 취득 및 경력자 등이다.

이번 훈련은 2018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구조대원 인명구조능력 배양과 일선소방서 구조대원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재난발생시 안전하고 신속한 인명구조활동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훈련진행은 소방헬기의 특성과 사고사례 전파 등 이론교육과 실제상황을 연출하여 육상 및 항공에서의 입체적인 인명구조 대응능력 훈련으로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구조대원의 안전확보와 현장대응능력을 한층 강화했다.

이흥교 소방본부장은 "앞으로도 특수구조대원이 주축이 되어 인력풀 구조대원과 합동으로 산악, 계곡, 스키장사고 등 다양한 유형의 합동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 “의무소방대원 가혹행위 점검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의무소방대원들의 병영악습 내부 고발자에 대한 색출을 지시한 직원에 대해 주의조치를 하고 정부에 의무소방대원에 대한 인권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월 군인권센터는 경기지역 소방서에서 근무 중인 의무소방원 A씨 등 3명이 지난 2016년 4월 이후 다수의 선임 소방대원으로부터 직제표와 근무수칙 암기 강요, 자체 시험 낙제자에 대한 정좌 자세 열차려 실시, 기수별 행동제한 준수 요구, 욕설, 집합 등의 피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소방서에는 오래 전부터 기수별 행동제한, 암기시험, 열차려 등 관행이 존재했으나 최근 들어 발생 빈도가 줄거나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한 피해자들은 소방서 일부 간부로부터 “내부 고발자”로 몰리고 선임들의 폭언까지 감수해야 했다. 또한 소방서 측은 기관 책무인 의무소방원 직무교육을 선임 대원에게 위임하는가 하면, 욕설 피해 방지를 위한 정신교육에 피해자와 가해자를 동석시키는 등 부적절하게 의무소방원을 관리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의무소방원 제도가 '병역법' 제25조에 의한 전환복무제도이므로 의무소방원들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10조(군인의 기본권과 제한), 제26조(사적 제재 및 직권남용의 금지) 등의 보호대상자이자 의무수행자"라면서 "소방서 측이 의무소방원들의 민원 등에 적극 대처하지 않았고 욕설과 열차려 사실을 인지하고도 징계위원회 개최 등을 추진하지 않은 점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이 명시한 국가기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지난 2015년 12월 강원도 모 소방서 의무소방대의 가혹행위 사건과 관련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사례 공유 등을 권고했고, 국민안전처는 인권위 결정문을 전파, 시도별 자체점검 실시 등의 이행계획을 인권위에 회신했다"면서 "이번 사건은 의무소방대원에 대한 인권침해 재발 사례인 만큼 전국 의무소방대원 대상으로 인권실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강원소방 119구급차 병원성 세균 검사 결과 '안전'

강원도소방본부(본부장 이흥교)는 도내에서 운영하는 103대의 119구급차 병원성 세균 감염실태 검사 결과 전 차량에서 불검출되는 등 병원성 세균으로부터 안전하다고 25일 밝혔다.

강원소방에 따르면 119구급차는 다양한 질병 환자를 이송하기 때문에 병원균 감염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 1일 1회 이상 수시소독과 주 1회 이상 정기소독을 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감염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월 1회 이상 전문소독업체에 위탁소독도 운영한다.

강원소방 119구급대는 체계적인 감염관리시스템을 위해 지난 2016년 38개소의 감염관리실을 신축해 도내 총 57개소 감염관리실을 운영 중이다. 또 구급대원과 구급기자재, 구급차량 등 감염관리 전반에 관한 시스템을 구축해 감염관리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있다.

이흥교 소방본부장은 “다양한 사건·사고로 감염 위험성을 상시 내재하고 있는 119구급대의 감염을 완벽하게 막고 구급대원과 구급 수혜자, 보호자에 대한 안전 확보와 교차 감염 역시 차단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임희진 기자 hee5290@fpn119.co.kr



**SUV 차량 2대 정면 충돌... 3명 사상
주택에서 불..거주자 1명 숨져**

오늘 오전 3시 42분쯤, 홍천군 두촌면 철정휴게소 인근 도로에서 투싼 차량과 티구안 차량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투싼 차량 운전자 34살 최 모 씨가 숨졌고, 동승자 33살 김 모 씨와 티구안 차량 운전자 46살 윤 모 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투싼 차량이 도로를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0시 40분쯤, 인제군 남면 신남로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주택 100제곱미터를 모두 태우고 1시간 50여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집 안에 있던 62살 이 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고, 소방서 추산 4,2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중석 춘천소방서장, 석가탄신일 대비 문화재 보유 사찰 현장방문지도

안중석 춘천소방서장은 25일 문화재보유사찰인 청평사를 방문해 사찰 내 화재 취약요인을 점검하고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방문에서는 ▲연등·촛불, 가스 등 화기취급시설 안전관리 지도 ▲유사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차 진입로 확보 ▲화재시 인근 산림 연소확대 방지를 위한 초기대응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안중석 소방서장은 “사찰은 화재위험성이 상존하는 시설임을 감안 해 석가탄신일을 전·후해 사찰 주변 유동순찰과 특별 경계근무로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원주소방서장 전통사찰 방문지도 나서



원주소방서 원미숙 소방서장은 25일 11시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태장동 소재 영천사에 대해 현장 방문지도에 나섰다.

이번 지도방문은 목조문화재 및 전통사찰에 대한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관서장 중심의 선제적 예방활동과 관계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통하여 소방안전의식을 고취하고자 진행됐다.

원미숙 서장은 "석가탄신일 전후 봉축행사를 위한 연등설치 등으로 화재발생 위험이 높다"며 "전통사찰 주변 화재취약요인 사전 제거, 소방시설의 철저한 유지관리 등 자율안전관리를 통한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주소방서, 투·개표소 소방특별조사



원주소방서(서장 원미숙)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투·개표소 등 선거관련시설 111개소(개표소 1, 투표소 85, 사전투표소 25)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20일까지 18일간 투·개표소의 화재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소방시설의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해 안전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으며 실시 결과양호 78개소, 불량 14개소가 발생해 불량 14개소에 조치명령서를 발부했다고 밝혔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불량 사항 개선(4.25한)과 관계자 안전의식 개선으로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주소방서, 전통사찰 화재진압훈련 실시



원주소방서(서장 원미숙)는 지난 24일 원주시 행구동 치악산자락에 위치한 전통사찰인 국형사와 보문사에 대한 화재진압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전통사찰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근 치악산으로 연소가 확대되는 상황을 가정해 자위소방대의 화재신고와 자체 소방시설을 이용한 초기 대응, 소방서와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화재대응능력을 강화코자 마련됐다.

주요 훈련내용은 자위소방대의 초기 진화와 화재신고, 산불로의 연소확대를 대비한 소방서와 유관기관의 입체적 합동 대응, 소방차 진입근란지역의 화재대응 매뉴얼 숙지와 취약시설 안전점검 등이다.

원미숙 서장은 “전통사찰 소방차 진입로 확보 철제와 촛불, 연등 등 화재취약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차단해 석가탄신일 대비 전통사찰과 문화재 화재안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주소방서, 의무소방원 힐링캠프 운영



원주소방서는 24일부터 26까지 2박 3일간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미리내 힐링클럽에서 의무소방원 힐링캠프(행복더하기 캠프)를 운영한다.

이번 캠프에는 의무소방원 4명(장동혁, 백동민, 홍지성, 이종원)이 참가하며 각종 소방활동(화재·구조·구급)현장에서 겪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활기찬 병영생활과 사기진작을 위해 계획됐다.

캠프에서는 전문심리상담사를 초빙해 집단 심리상담을 받고 산책로를 탐방하는 등 의무소방원들에게 정서적인 안정을 제공하고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정신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원미숙 서장은 "소방현장의 보조인력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의무소방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관리 및 병영활동의 사기진작을 위한 이번 힐링캠프를 통해 의무소방원들이 잠시나마 휴식을 갖고 재충전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 말했다.

강원도민일보 [원주] 현장대응 역량 강화 논문발표 시연회



원주소방서(서장 원미숙)는 24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현장대응역량을 강화하는 연구논문 발표 시연회를 가졌다.

“평창올림픽 안전 우리가 책임진다”



▲ 주향중 서장을 비롯한 강릉소방서 직원들이 ‘평화의 벽,통합의 문’ 건립 캠페인에 동참했다.

평창동계올림픽 빙상경기 개최도시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강릉소방서 직원들이 ‘평화의 벽·통합의 문(The Peace Wall & Gate)’ 건립 캠페인에 동참했다.

주향중 서장을 비롯한 강릉소방서 직원들은 최근 소방서 현관에서 서명식을 갖고 동계올림픽을 성공 개최와 평화 유산을 남기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주서장은 ‘전쟁,분쟁,갈등이 없는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라는 메시지로 평화올림픽을 기원했다. 또 박흥목 방호구조과장은 ‘열린 마음으로 함께하는 평창올림픽’을, 김상래 현장대응과장은 ‘세계의 평화는 평창으로, 세상의 희망은 평창에서’라는 메시지를 적었다. 직원들은 “세계인의 축제, 평창올림픽 안전은 강릉소방서가 책임진다”는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주향중 서장은 “평화는 가장 거대하고 절실한 메시지”라며 “평화올림픽 성공개최에 강릉소방서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최동열

강릉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 기능숙달 도상훈련 실시



강릉소방서(서장 주항중)는 25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소방공무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긴급구조통제단 기능숙달 도상훈련을 실시했다.

긴급구조통제단 훈련은 통제단 운영요원이 임무와 역할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지휘관이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현장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훈련이다.

훈련은 아이스하키 경기장내 폭발물에 의한 경기자 일부 붕괴 및 화재에 의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 및 관람객 대피지연을 가정해 상황변화에 따른 담당자별 임무와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문제점에 대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항중 서장은 “각종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각자 개인의 임무를 숙지해 비상 출동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해 안전한 강릉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소방관의 자긍심 담은 명함 1,000명에 선물”



재난 현장 최전선에서 애쓰는 동료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동료 소방관 1,000명에게 온라인 명함을 무료로 선물해준 강릉소방서 최광모(32) 소방위의 선행이 화제다.

최 소방위는 현장 부서에 근무하는 동료가 종이 명함 제작을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온라인 명함 제작을 시작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최 소방위가 주위 동료들에게 만들어주기 시작한 명함은 입소문을 타면서 6개월 만에 제작 개수가 1,000개를 넘어섰다.

여전히 최 소방위는 주말과 휴일이면 매주 30~40명 분의 명함을 새롭게 만들고 등록법까지 안내하고 있다. SNS 등에서 직접 제작 신청을 받아 현재 대기인원만 400명이 넘는다.

특히 최 소방위는 단순히 명함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온라인 명함을 갖게 된 전국의 소방관을 한데 묶어 인적 교류를 위한 온라인 그룹을 만들었다.

이 그룹을 이용하면 전보, 직책 변동 등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메시지도 주고받을 수도 있다.

최 소방위는 “더 많은 사람과 좋은 정보를 나누고 싶어 시작한 일”이라며 “앞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소방관이 한 가족처럼 소식을 자유롭게 주고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동해소방서, 송정초교 6학년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강원신문
 江原日報



동해소방서(서장 김영조)는 25일 11시 송정초등학교에서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발견자의 중요성, 119신고요령, 가슴압박,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실습체험 교육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소방서 관계자는 “어린 학생들도 정확하고 제대로 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을 때 생명을 소생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므로 평소에 심폐소생술의 방법에 대해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side.com


코레일 강원본부, 영동선 비상대응 종합훈련 실시



이태용 기자 = 코레일 강원본부(본부장 김형성)는 25일 영동선 솔안터널에서 지진으로 인한 여객열차 탈선사고 및 화재 발생을 가정한 비상대응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태백시, 태백경찰서, 태백소방서, 태백보건소, 철도사법특별경찰대, 삼척자원봉사센터 등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여객열차가 탈선하고 객차에서 발생한 화재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한 이날 훈련은 상황전파, 사경을 통한 사상자 구호, 화재진압과 승객안내, 탈선차량과 시설물 긴급 복구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특히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주관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관 12명과 철도안전지킴이 20명이 훈련을 참관하고 평가했다.

김형성 강원본부장은 “한반도는 지진의 안전지대라 할 수 없는 만큼 지진으로 인한 열차사고 발생을 대비한 훈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훈련을 통하여 신속한 재난대응 및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이 안전하게 개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백소방서, 솔안터널 비상대응 종합훈련 실시



강원 태백소방서(서장 석교준)는 25일 태백시 솔안터널에서 한국철도 강원본부와 합동으로 비상대응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솔안터널 구간은 동백산역~도계역까지 총 연장 16.24km이며 지진에 의해 열차 탈선 및 화재 발생으로 다수의 사상자 발생을 가정한 훈련으로 진행됐다.

이번 훈련에는 총 409명(소방 119, 의소대 80, 공무원 66, 경찰 12, 군부대 85, 철도 48), 21대의 차량이 동원된 가운데 실전과 같은 훈련을 실시했다.

석교준 태백소방서장은 “터널화재 진압 시 터널안의 고압전선에 의한 감전의 위험과 길고 어둡기 때문에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많다”며 “정확한 좌표 파악 및 다양한 위험요소를 고려한 반복적이고 실질적인 훈련으로 국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도민일보 [수요광장] 봄철 산나물 중독 안전사고 예방



시나브로 따뜻하게 내리쬐는 봄 햇살은 우리 몸속 세포하나 하나를 녹여 활기를 불어 넣어주고 있다. 화사한 봄치려처럼 우리들의 마음속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소풍가는 어린이처럼 마냥 설레게 하고 있다. 하지만 양날의 칼처럼 봄철 산나물 들판의 부드러운 아름다움 속에는 감추어진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봄철 산나물 중독 안전사고가 수시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지금 산나물은 비닐하우스나 밭에서 특용작물로 대량으로 재배되고 있지만 보리고개가 있던 춘궁기 땀 배고픈 민초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한끼 식량으로 없어서는 안될 존재였다.

봄철 산나물을 먹어본 사람은 대부분 공감 할 것이다. 산나물이 주는 특유한 쌉싸름함과 고유의 향은 된장에 쌈을 싸서먹고, 찜개에 넣고, 무쳐먹어도 색다른 맛과 신선함은 고층빌딩의 콘크리트의 숲과 아스팔트가 난무한 도시에서도 자연과 함께한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연결점 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봄나물에는 자연독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생으로 먹을 경우에는 식중독은 물론 심한 경우 간독성에 걸릴수도 있다고 하니 노약자 또는 간기능이 좋지 않을 경우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다. 안전하게 산나물을 섭취하는 방법은 흐르는 수돗물에 3회 이상 깨끗하게 씻은 후 조리하고 두릅, 다래, 고사리 등은 반드시 끓은 물에 데쳐야 독성을 없앨 수 있으며 달래, 씀바귀 등 생으로 먹을 수 있는 봄나물은 흐르는 물에 여러번 씻은 후 섭취하여야 한다.

산나물 중에서는 전문가가 아니면 구분하기 어려운 종류가 비슷하게 생겨 일반인이 구별하기 힘든 독초가 있기 때문에 채취한 나물과 독초를 섞어서 먹다보면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중독사고를 발생하는 독초의 특징으로는 줄기를 꺾어서 냄새를 맡았을 때 역한 냄새가 난다. 돌로 즈을 내서 팔뚝에 발랐을 때 바른 곳이 빨래지거나 가렵다. 삶았을 때 색깔이 검게 변한다는 점이 있으며, 맹독이 있는 독초는 아무리 불에 익혀도 독성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먹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독초에 대한 예방뿐만 아니라 중독되었을 때 당황하지 말고 증상과 응급처치 법을 확실히 숙지하고 침착하게 대처하도록 해야 한다. 증상으로는 설사, 복통, 어지러움, 경련, 호흡곤란, 구토 등이 증세가 나타나며 심한 경우 의식을 잃는 경우도 있다. 중독 증세가 나타나면 즉시 입에 손가락을 넣어 먹은 내용물을 토하게 한 다음 뜨거운 물을 마시게 하고 먹다가 남은 독초를 가지고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의식을 잃은 경우는 억지로 토하게 하면 기도를 막을 수 있으므로 토하게 하면 안 된다.

속초소방서,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시연회



속초소방서(서장 정효수)는 25일 오전 10시 대회의실에서 전국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강원도 대표로 출전하는 경동대학교 '이가네' 팀(이동하, 이찬술, 이아빈 학생)의 시연회 자리를 마련했다.

이 팀은 지난달 7일 강원도민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서 1등(최우수)을 차지해 강원도 대표로 선발됐으며 오는 26일 대구 국제소방안전 박람회에서 개최되는 전국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 대회 출전 자격을 부여 받았다. 이 대회는 심폐소생술 보급과 심정지 환자 소생을 제고를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열린다.

정효수 서장은 시험기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준비해준 학생들의 노고에 격려하면서 “전국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속초소방서, 석가탄신일 대비 문화재 합동점검



속초소방서(서장 정효수)는 25일 석가탄신일 대비 문화재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안전점검은 석가탄신일 전후 봉축행사와 관련한 연등설치와 촛불 등 화기사용 증가로 인한 사찰의 화재 발생 위험이 예상됨에 따라 만일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 내 전통사찰인 신흥사와 계조암을 대상으로 속초소방서, 속초시청, 참빛도시가스가 합동으로 진행했다.

또 사찰 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옥외소화전과 방수총 사용법 교육을 시행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윤종진 방호구조과장은 “문화재 사찰은 대부분 소방서와 멀리 떨어져 있는 산중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화재 시 관계인의 초기대응과 신속한 대처가 중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삼척소방서, 노인 사회활동 참여자 대상 소방안전교육



삼척소방서(서장 김형도)는 지난 24일 오후 삼척시청 1층 시민회의장에서 2017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자 80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날 교육은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안전상식과 비상상황 시 대처 요령을 교육 주제로 삼아 소화기 사용 시 주의할 점, 심폐소생술 직접 체험 등 실생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또 어르신들의 경우 일반 주택의 거주 비율이 높아 주택 화재 시 꼭 필요한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의무 설치 홍보 등도 교육 내용에 추가 시행해 더욱 안전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보도 제공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어르신 분들이야말로 심폐소생술 같은 비상 대처 요령 교육이 꼭 필요한 대상”이라며 “더 폭 넓은 분들에게 유용한 소방 안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홍천소방서, 현장출동 적응훈련



홍천소방서(서장 이종진)는 25일 오후 2시 홍천읍 홍천축산업 협동조합에서 현장출동 적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연중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인 봄철에 불특정 다종이 많이 모이는 곳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한 사전 적응훈련이다. 김관식 진압계장은 “화재예방이 최선이지만 예방을 했음에도 사고는 언제 발생할 지 모른다. 유사시 소방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훈련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江原日報

“어린이날 큰잔치 초대합니다”

제95회 어린이날을 앞두고 `홍천 꿈나무 큰잔치-무궁화 아이들이피었습니다' 준비가 한창이다.

홍천꿈나무큰잔치추진위원회는 오는 5월5일 홍천 토리숲 일대에서 열리는 이번 큰잔치의 테마를 `꿈꾸는 아이들, 즐거운 친구들, 행복한 우리들!'로 정하고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홍천군, 꿈나무큰잔치위원회(위원장:신덕진 군청소년수련관장), 강원일보가 공동으로 주최, 주관, 후원하는 이날 꿈나무 큰잔치는 동심을 아름답게 가꿔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1군사령부 태권도시범, 무궁이 소년소녀합창단 공연, 댄스공연, 무궁화 악단 공연, 오디오스 매직 공연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또 군종합사회복지관의 블록체험, 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그림조각 만들기, **홍천소방서의 119안전체험**, 홍천경찰서의 경찰체험 등 40개 기관이 체험 행사를 준비해 어린이를 찾아간다. 이와 함께 다우리봉사회 등 지역의 봉사단체, 사회단체도 총출동해 팝콘, 냉차, 아이스크림과 같은 먹거리 나눠 주며 어린이들에게 꿈을 선사한다.

횡성소방서, 웰리힐리 자위소방대 참여 가상화재훈련



횡성소방서(서장 이병은)는 25일 오전 10시 둔내 웰리힐리에서 소방차 5대, 소방대원과 자위소방대원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가상화재출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훈련은 유스호텔 1층 로비에서 원인을 화재발생을 가상해 ▲자위소방대에 의한 초기 소화와 투숙객 긴급대피 유도등 역할 숙지 ▲소방대원의 화재 진압과 3층 이상 설치된 완강기를 이용한 요구조자 구조훈련 등을 중점으로 전개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숙박시설에서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시설 내 자위소방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반복적인 훈련으로 초기대응능력과 관계자 안전의식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횡성소방서, 석가탄신일 대비 전통사찰 지도방문



횡성소방서(서장 이병은)는 25일 오후 2시부터 관내 전통사찰(횡성읍 보광사, 청일면 봉복사)을 방문, 석가탄신일 대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석가탄신일을 맞아 사찰 주변 연등이나 촛불 설치로 화기사용이 늘어나고 범죄 등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통사찰 주변 화재취약요인 제거 및 소각행위 금지 당부 ▲석탄일 전후 연등설치 및 촛불사용 등 화기취급 주의 당부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에 대한 관리 확인 ▲관계인 소화기 사용법 교육 등을 지도했다.

이병은 서장은 “목재 구조인 전통사찰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순식간에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계자는 화재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횡성 안흥면 농기계 창고서 불...창고·비닐하우스 전소

(횡성=뉴스1) 권해민 기자 | 2017-04-25 17:25 송고

기사보기

네이버의견

Tweet

인쇄 | 확대 | 축소



25일 오후 2시27분쯤 강원 횡성군 안흥면 지구리 일대인 창고에서 불이나 전화작업에 나선 소방대원들이 잔해를 정리하고 있다. 이 곳은 30여분만에 꺼졌으나 창고 1동과 비닐하우스 1동을 모두 태웠다(횡성소방서 제공)2017.4.25.뉴스1 ©뉴스1 권해민 기자

25일 오후 2시27분쯤 강원 횡성군 안흥면 지구리의 한 창고에서 불이 나 창고와 창고 바로 옆 비닐하우스 1동이 전소됐다.

소방당국은 화재 신고를 받고 소방차량 7대와 소방대원 15명을 투입해 30여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다.

이 불은 99㎡ 규모의 농기계 보관용 창고 1동과 비닐하우스 1동을 모두 태워 소방서 추산 7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횡성 우천여성의용소방대, 주거 환경 개선 봉사활동



횡성 우천여성의용소방대(대장 홍정숙)는 25일 관내 중증장애인가구를 방문해 ‘새봄맞이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우천여성의용소방대원 5명이 참여해 겨우내 집안 구석구석에 쌓여있던 묵은 때를 없애고 집안 가재도구 등을 말끔히 정리해 집안 분위기를 상큼하게 전환해 줬다.

우천여성의용소방대에서는 매주 우천실버대학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급식봉사도 꾸준히 참여하고 있고 매월 홀로 어르신 가구나 몸이 불편한 장애인 가구등을 방문해 나눔과 베품의 미학을 실천하고 있어 지역 내에서 호평이 자자하다.

홍정숙 우천여성의용소방대장은 “내 가족의 일처럼 열정을 갖고 참여해주는 대원이 있어 행복하고 지역 내 홀로 어르신과 몸이 불편한 이웃들에게 행복과 웃음을 퍼줄 수 있는 나눔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영월소방서, 석정여고 교직원 소방안전교육 실시



(영월=국제뉴스) 이종근 기자 = 강원 영월소방서는 25일 오후 1시 본서 교육장에서 석정여자고등학교 교직원 50여명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교내 안전사고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 등 대처방법 교육, 소(소화기)-소(소화전)-심(심폐소생술) 등 화재예방 교육으로 진행됐다.

소방서 관계자는 "학교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선생님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이번 체험교육을 통해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월소방서장 석가탄신일 대비 전통사찰 현지방문



(영월=포커스뉴스) 강원 영월소방서 강윤중 서장은 석가탄신일 대비하여 25일 전통사찰인 법흥사 외 2개소를 방문하여 현지 지도 및 화재 예방에 대한 당부사항을 전했다.

이번 방문은 석가탄신일 전후 봉축행사를 위한 연등설치 등으로 인한 화재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사찰을 찾는 많은 방문객들의 안전과 위험요소 점검 및 사찰 관계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실시됐다.

또한 사찰 관계자에게 소방시설에 대한 관리 확인, 전통사찰 주변 화재 취약요인 제거 및 소각행위 금지, 관계자 화재 예방 및 자율안전관리 당부 자체 안전교육 및 소방 방재시설 100% 가동상태 유지 등을 당부했다.

강윤중 서장은 "석가탄신일이 안전하고 뜻깊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도 소방안전 및 화재에 철저한 준비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평창소방서, 봉평초등학교 합동소방훈련



평창소방서(서장 남궁규)는 25일 오전 10시 봉평초등학교에서 교직원과 전교생 150여 명을 대상으로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화재 발생 시 대피훈련, 지진 발생 시 대처요령을 시작으로 실제로 소화기를 사용해 보며 소화기 사용법을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

평창소방서, 한국119소년단 지도교사 협의회



평창소방서(서장 남궁규)는 25일 오후 3시 2층 소회의실에서 소방과 지도교사 등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한국119소년단 지도교사 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7년 한국119소년단 발대식 계획과 하계체험캠프 등 활동 사항 안내, 각종 화재예방 캠페인과 봉사활동 참여 협조, 지도교사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평창소방서 한국119소년단은 평창초, 진부초, 봉평초, 진부초 4개 학교에 93명으로 구성됐다.

평창소방서, 화재피해주민 심리상담 지원



평창소방서(서장 남궁규)는 25일 지난 2월과 3월에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 2가구를 방문해 심리상담 지원을 실시했다.

이날 심리상담 지원은 프로그램 안내 서한문을 전달과 함께 국립춘천병원에서 제공한 화재피해 주민에 대한 50가지 문항의 정신건강 평가지를 작성했다.

이번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은 화재 피해 주민에 대한 외상 후 스트레스(PTSD)를 사전 예방하고 정신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평가지 내용은 사건충격 척도 22문항, 우울증 진단 10문항, 수면장애 진단 8문항,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 10문항으로 이뤄져 있다. 작성된 평가지는 평창소방서에서 국립춘천병원으로 보내고 검진결과를 받아 고위험군으로 판정될 경우 방문검진을 받아야 한다.

남궁규 서장은 “지속적으로 화재피해주민 심리상담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선소방, 봄철 산악사고 예방 캠페인



▲ 정선군과 정선소방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25일 가리왕산 매표소에서 봄철 산악사고 예방 캠페인을 했다.

119드론 구조팀 열화상 카메라 도입



정선소방서는 지난 13일 드론에 열화상카메라를 장착했다.

정선소방서는 지난해 2월 정선군으로부터 드론1기를 지원 받아 8월 전국 최초로 119드론구조팀을 발대해 실종자 수색 등 각종 재난 재해현장에 드론을 투입해 입체적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정선소방서 119드론 구조팀은 지난해 7월 정선군 남면 광덕리 승용차 하천추락 실종주민 수색과 올해 4월 발생한 임계면 덕암리 산악사고 실종자 수색 등에 투입돼 조기에 실종자를 발견하게 하는 등 지금까지 총 20여회의 출동으로 효과적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이번 드론에 장착하게 되는 열화상카메라는 정선군에서 1500만원을 들여 정선소방서에 지원하는 장비로 향후 시야확보가 불가능한 주야간 조난자 수색 및 건물 내 화재현장 발화지점 탐색을 하는 등 소방관의 '제2의 눈'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기중 정선소방서장은 “드론과 열화상카메라 등을 지원해준 정선군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드론을 활용해 정선군민의 안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철원소방서·경찰서 “산악사고 합동 구조훈련” 실시

철원/ 지명복기자 jmb123@jeonmae.co.kr 2017년 04월 25일 화요일



강원, 철원소방서(서장 이석철)는 25일(화)오전10~12시 정오까지 철원경찰서와 합동으로 봄철 산악사고 대비 특별구조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봄철 등산객이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는 산악사고를 대비해 신속한 현장대응 및 인명구조능력을 배양하여 이른바 산악사고 골든타임 확보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암벽등반 중 고립 및 추락 사고를 가정해 이날 훈련은 ▲구조요령 이론 ▲구조장비 조작법 ▲들것 결착 및 환자운반법 ▲심정지 및 외상환자 처치방법 등으로 진행됐다.

이석철 소방서장은 “봄철은 등산객이 많아 산악사고가 급증하는 계절인 만큼 유관기관과의 합동훈련과 숙달을 통해 최고의 구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인제소방서, 석가탄신일 대비 전통사찰 소방특별조사



인제소방서는(서장 김상철) 지난 24일부터 2일간 석가탄신일을 대비해 전통사찰 및 목조 문화재 등에 대한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소방특별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에는 인제군 안전건설과, 문화관광과,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와 함께 관내 전통사찰 및 목조문화재 5개소(인제향교, 백련정사, 백담사, 오세암, 봉정암)에 대해 석가탄신일 전후 봉축행사와 관련한 ▲촛불·연등사용으로 인한 화재취약 요인에 대한 안전지도 ▲각종 소방시설 정상 작동여부 확인 ▲관계인의 자체점검 이행 실태 등 소방안전관리 적정 수행 여부 등을 점검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석가탄신일 전후는 봉축행사와 관련한 연등설치, 촛불이나 전기·가스 등 화기사용 증가로 화재발생 위험이 높다”며 “이 기간에 화재 등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예방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인제 주택서 화재 6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25일 오전 12시44분 강원 인제군 남면 신남로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이모 씨(62)가 숨진 채로 발견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씨는 화재를 진압하러 온 소방대원에 의해 화장실 겸 보일러실에서 전신이 불에 타 숨진 채로 발견됐다.

불은 100㎡의 주택을 다 태워 약 4261만원(인제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냈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소방차, 구급차 등 10대와 인력 18명을 동원해 오전 2시36분쯤 불을 완진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양양=포커스뉴스) 강원 양양소방서가 지난 1일부터 5월 말까지 설악산 오색리 일원에 '등산목 안전지킴이 및 간이응급의료소'를 운영 중이다. 25일 소방서에 따르면 봄철 '등산목 안전지킴이'는 가족단위로 등산객 이용이 집중되는 연휴기간과 주말에 안전사고 예방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대원을 배치하는 국민안전 제도다.

활동은 주말과 공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까지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이 함께 팀을 이뤄 오색리 등산로 입구에 배치되며 설악산 일대의 산악안전사고에 대비하는 활동한다.

이외에도 △안전사고 및 산불예방 홍보 △사고발생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희망자 혈압체크 및 신체이상 징후자에 대한 등산자제 요청 △산불방지를 위한 예방순찰 등의 활동 등이다.

소방서 구조구급담당은 "대부분의 산악사고가 안전수칙을 무시하거나 본인 체력에 비해 무리하게 산행을 하다 발생하니 항상 자신의 체력에 맞는 산행을 실시하고 사고에 대비해 등산로에 설치된 119산악위치표지판 번호를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양소방서 시민안전관리협의회는 지난 20일부터 양양군 안전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관내 주요 장소에 '소방차 길 터주기', '주택용소방시설 의무설치'를 테마로 플래카드를 게시했다.

이번 홍보활동은 2017년을 맞아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양양군 시민안전의식 일환으로 시작돼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양양소방서 시민안전관리협의회는 지난해 7월 창립해 각종 캠페인 동참, 화재없는 안전마을 사후관리 협조뿐만 아니라 12월에는 화재피해가구 주민돕기에 앞장 서 성금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 몫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양양소방서 시민안전관리협의회 윤무광 회장은 "안전문화의 확산의 첫 걸음은 소방차 길 터주기와 주택용소방시설 의무설치"라며 플래카드를 게시 취지를 설명하는 한편 많은 시민의 동참을 요구했다.

“소방관의 자긍심 담은 명함 1,000명에 선물”

◇강윤종 영월소방서장은 26일 오후 3시 소방서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참여 및 홍보를 위한 공인중개사협회 간담회에 참석.

◇이종진 홍천소방서장은 26일 오전 10시 동면생활체육공원에서 ‘상반기 직장인 체육대회’를 개최한다